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이종태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1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온다.

전 세계 183개국 가운데 1위는 싱가포르, 2·3위는 뉴질랜드와 홍콩이 각각 차지했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매년 각 나라별로 창업이나 고용, 자금조달, 세금 납부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절차나 비용을 계량화해 순위를 매긴다.

금융권 '빚장'도 해결해야

지난 5월 상법개정을 통해 창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창업부분의 순위가 지난해 126위에서 올해 53위로 경종 뛰어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발 그들 중에는 그렇게도 제대로 된 이들이

감점요인도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평가대로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됐을까.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직 잠복해 있는 '전봇대'

전봇대 더 뽑아야 한다

가 적지않아 기업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창업부문의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73개 단 뛰기는 했으나, 그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창업부문의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73개 단 뛰기는 했으나, 그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상호 등록에서부터 은행 계좌 설정, 세무서 신고, 지방노동청 취업 규칙 신고서 제출 등 8단계를 거치고 나면 14일이나 걸린다.

어려운 창업과정을 뚫고 헌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 역시 전봇대로 인해 겪

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남도내에서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4년째 수익원의 종자돈을 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공장부지 하나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금융난을 해소하달라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라던 정부의 약속은, 담보와 상환가능성만을 채는 금융권의

미등록 규제 찾아내라

지급부터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기업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 시스템과 관련법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곳곳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를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말 현재 정부 주요 부처의 미등록 규제가 1만3천347건으로 등록 규제 4천240건의 3배를 넘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서투르거나 게을렀음을 의미한다.

구호만 요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만으로 기업인들이 기릴 언덕을 장만해 주기란 쉽지 않다.

일이나 허송한 셈이다. 영암 대불산단에서 규제의 상징인 전봇대가 뿔뿔해져나갈 때 기업인들이 환호했던 게 지난해 2월로 기억된다.

최근 전경련이 올해 1~3월 355개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업체가 27.1%에 불과했으며, '보이지 않은 전봇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등록 규제 찾아내라

지급부터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기업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 시스템과 관련법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곳곳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를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말 현재 정부 주요 부처의 미등록 규제가 1만3천347건으로 등록 규제 4천240건의 3배를 넘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서투르거나 게을렀음을 의미한다.

구호만 요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만으로 기업인들이 기릴 언덕을 장만해 주기란 쉽지 않다.

〈사회2부장〉 jitee@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백강화. 요즘 서울 뒷골목 돌아가는 걸 지켜 보노라면 주부지만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만약 그들이 우리 아이들이었다면 정말 가만 안 두었을 것이다.

없을까? 그렇다면 차라리 길에서 지나가는 젊은이를 중 아무나 캐스팅해서 세운들 이들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본다. 적어도 청년실업에도 보탬이 될 거고 권위나 가식 없이 참신한 정책을 행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한약재에도 '이력 신고제' 시행 했으면

수입농산물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유통이력 신고제도' 라는 게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거래내역을 신고해 하고, 유통이력장부를 기록해서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데, 안타깝게 한약재가 포함돼 있지 않으니 제도를 바꿔서 한약재도 이력제를 하도록 해야 옳다.

현재 식품품에 들어온 수입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수입 한약재가

기고 송병태. 1964년 비행장 활주로가 준공될 당시 시가지에서 16km 떨어진 허허벌판이었다. 이제 도심권의 중심부에 있게 되었다.

광주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하고 광주의 중심축은 영산강이 되어야 함에도 비행기 항로 때문에 영산강 주변의 개발이 규제되어 도시가 단절되는 등 기형적인 도시발전이 되고 있다.

'가출...자살...' TV 속 연예인들 '말' 가려서 해야

요즘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필적하면 "어려울 때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고백한다. 물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굳이 언론과 인터뷰 때 그런 말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해서 팬들로부터 동정표라도 얻고 싶어서 그런가.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이다. 지금 밥을 굶는 초·중·고등학교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고교의제차 못 타고, 고급 아파트에 못살고, 매니저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게 경제적 어려움인가?

시설

'삼호지구 첫삽' J프로젝트 활성화 계기로

전남도 주요 현안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가 지난해 2003년 밑그림이 그려진 뒤 6년여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한 곳인 영암군 삼호읍 일원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민자를 포함해 총 35조 원이 투입돼 5만 가구, 23만 명이 거주하는 복합관광도시로 조성된다. 삼호지구는 건설단계부터 3조9천800여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현재 구상과 부동지구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삼포지구 역시 F1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고려청자 '바가지'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강진군이 고려청자 2점을 구입하면서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는 의혹이 국경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각각 1억여원에 불과한 고려청자를 10억원밖에 구입해 18억여원의 허세를 날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5일 국경감사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지난해 2007년 10억원에 구입한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과형주전자는 실제 감정가격이 8천만~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역시 10억원에 사들인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도 시제가 1억4천만~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매입과정에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강진군과 감정평가위원들은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이 결정됐으며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해

無等鼓

'텔로미어(telomere)의 퇴화'라는 게 가능하고, 여겨졌을 때 암 세포의 무한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노벨위원회가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의 기능을 밝혀낸 블랙번, 그리더, 쇼스택 등 미국 의학자 3명을 선정했다.

블로장생의 꿈

미어를 발견한 이래 전세계 의화학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해 항암제 등 신약 개발이 임박해 있다. 그렇다면 영생의 비밀이 현재로서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당장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권고도 더 많다.

모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자, 혈액, 줄기, 암 세포의 텔로미어는 대부분 그 길이를 유지한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